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교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창세 14,18-20
 [하답송] 시편 110(109), 1.2.3.4. (© 4 L C)



- (후렴) 뉘 키 체 뉘 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 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뿜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제2독서] I 고린토 11,23-26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11L-17

[성가안내]

- 입당성가 [169] 사랑의 성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 파견성가 [201] 은총의 샘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쪽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영애 레지나
정 정옥 스테파노	김 유나 실비아 가족
김 용기 요셉	주 바울라
김 일우 안토니오	김 승범 프란치스코
박 정임 보나	김 미화 마리 클레어
백 한성	최 병남 미카엘
최 순금	최 병남 미카엘
생미사	봉헌
김 진열 가롤로 신부 (사제 성화의 날)	신명
김 진열 가롤로 신부 위하여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조 후연 야고버 신부 위하여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연령회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성소후원회원(양업회원) 가정의 영.육 건강위해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정 대식 가정을 위하여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가족
노 시원 임마누엘라/노 시윤 글로리아	김 유화 데레사
이 루리 모니카, 박 창현	이 경자 울리안나
김 현욱 라파엘	정 희자 리드비나
이 상영 바오로 (치유를 위하여)	양 미숙 마리아
최 소피아 (생일 축하)	최 병남 미카엘
Charles A. Whelan	김 승범 프란치스코
김 종선 비비안나	이 경자 울리안나
김 기례 레지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황 경숙 수산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6월 19일	이지훈 아녜스	백승민 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이지연 안젤라
6월 26일	정동주 유스토	최미루 로사	김유화 데레사	김유화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김승현 마리아	김민규 요셉

● 6월 24일 (금)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 예수님 마음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 되고, 1856년 교회 전례력에 도입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며 모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 6월 5일 '25주년 기념 바자'에 우리 공동체 11단체가 참여하여 음식, 음료, 차, 간식, 옷, 모자, 갈비, 솜사탕, 유부초밥, 군만두, 식혜, 옥수수 구이, 갈비.... 등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요리하여 기쁨과 행복한 축제를 지내며 우리의 사랑도 커졌습니다. 풍물팀 '신명'의 우리 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지난 25년간 함께 해 오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요셉회 월례회 있습니다.
 - 오늘, 주일 미사 후 교육관 2E
- 꾸리아 월례회 있습니다.
 - 오늘, 오전 11시 1층 Conference Room
- 청년 'Zoom' 묵주의 기도 (레지오)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성소 후원회 (양업회) 월례회는 7월로 연기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 성심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내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유아세례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2022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출입·O·P·T·주·전·고·인·및
권·학·위·업·자·기·조·제·사·면·접·증·비·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 이 철회 -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제는 왼손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오늘은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 오른손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문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의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언젠가 건강을 잃었었기에 고생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강에 관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삶에서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돈을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문제를 겪는 것처럼, 저도 사제로 살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그 두 가지보다 먼저 신앙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올바른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요할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나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질문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에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없는데도, 그 사람은 세상의 일을 대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들으면, 아무래도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삶에서 멀리할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입니다. 사신 때가 우리와는 2천년쯤 시간차이가 나지만,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념하는 축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음식의 형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사에 올 때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그가 드러내는 것만큼만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해야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피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이 한계와 조건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하지만 사람은 시간과 대상을 구별하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잊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신앙인이란면서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느님을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성체/성혈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가 가능한 착각도 있고, 생각이 가능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착각도 있는데, 이렇게 잘못 대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개인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쓴 맛을 봐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고도 딱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미사에서 만나고 우리가 반복하는 소리를 앵무새소리로 여기지 말아야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함부로 말해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해야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도우심을 청할 시간입니다.